소비심리 꽁꽁… 소득 늘었어도 지갑 닫았다

3분기 가계 동향… 흑자 최대, 소비지출은 0.1% 감소

가구의 소비심리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 이상 가구의 지갑은 지난해보다 더 굳게 닫혔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3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늘어난 반면,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49만4000원으로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가구당 소비지출(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0.1%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소득은 늘었지만 지출이 사실상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액(95만9000원), 흑자율(27.8%)은 가계동향 조사를 실시한 뒤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6%, 1.4% 포인트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소비 위축 경향은 중산층 이상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하위 40% 소득층인 1·2분위 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반면, 중위 20% 소득 구간 이상인 3·4·5분위 가구는 줄어들었다.

1분위 가구를 예로 들면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104만4000원에 불과했지만, 소비지출은 127만2000원에 이르러 평균소비성향이 120.7%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2분위 가구도 가처분소득 230만4000원에 201만9000원을 소비해 87.6% 소비성향을 보여, 소비지출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2.4% 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중위 20%인 3분위 가구는 가처분소득 314만9000원에 234만5000원 지출로 74.5%(-4.4% 포인트) 소비성향을 보였고, 상위 20% 소득층이 5분위 가구는 가처분소득 658만4000원 중에 389만8000원만 소비해 59.2%(-1.2% 포인트) 소비성향을 보였다.

이에따라 소득 양화 지표는 악화됐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1분위 가구(하위 20%)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이 5.05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4.98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다. 특히 각종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수도·광열비(6.4%) 지출이 크게 늘어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를 주도한 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폭등과 월세 전환 급증으로 실제 주거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나 오른 탓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흑자가 많은데 지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해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경향이 사상 최고로 심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2967만원 전달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김인규)는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2·3차 조성금 2967만1760원을 지난 22일 오후 아시아문화전당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강운태광주광역시장,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부장, 정재덕 하이트진로(주) 광주·전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일환으로 2013년 1월부터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d맥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조성 목표액 3억원 달성 시 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조성된 금액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우리지역 결식아동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성금으로 사용된다.

하이트진로(주) 정재덕 광주·전남본부장은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마케팅 전개와 사회환원사업을 전개 할 것 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제품, 도심권 마트보다 비싸

설립취지 무색… 상품대금 역환시일 짧아 자금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조합원 등에게 판매하는 달걀 등 일부 품목이 도심권 일반 마트에 비해 판매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의 농협하나로마트는 조합원들에게 상품구입 때 편의를 제공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자체구매한 일부 품목 등은 시중 마트보다 20원~2000원 이상 비싸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광산구의 임곡 농업협동조합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최근 30개들이 달걀 한 판에 5500원, 1.8ℓ(19%)들이 소주 한 병에 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권 일반 마트의 경우 용량과 품질에 따라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30개들이 달걀 한 판은 2980원~3400원을 받고 있으며 소주 1.8ℓ(19%)들이 한 병에 3980원에 판매 돼 농협하나로마트 상품이 적게는 20~2000여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삼도농협 하나로마트는 30개들이 달걀 한판을 5200원에 판매했다

한편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들이 상품대금 역환(逆換) 시일이 짧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들은 계통구매한 상품대금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한달~두달사이 역환처리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규모가 큰 농협하나로마트들은 자금결재액이 많아 자금운용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곡농협의 한 관계자는 "달걀의 구입원가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 질 수 있는데 구입원가를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환기간에 대해서는 "역환기간이 너무 짧아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마련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역환처리 기간은 서로 간 약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중앙회도 물품공급 업체에 대금결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조합의 요구만을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

▲역환=물품 대금을 정해진 기간에 자동 정산하는 것.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 해제 쉬워진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추가

앞으로 분양광고와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파트분양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에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제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유형을 약정해제권 발생사유에 포함시켰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해제권 발생사유에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계약해제권 발생 여부를 두고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추가된 계약해제 사유는 법원의 판례 내용을 근거로 구체화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위약금 청구 근거 조항이 계약해제 조항을 인용함에 따라 위약금 청구조항도 함께 구체화했다.

계약 해제시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은 법정이율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시 사업자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율 이자를 가산해 반환토록 했다.

상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일 때 해당된다.

현행 법정이율은 민법 연 5%, 상법은 연 6%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물 온도따라 예쁜 글씨가 2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에서 한 고객이 따뜻한 물을 부으면 예쁜 문구가 나타나는 '매직컵'을 신기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글피움이 광주 우수수공예품 기프트 홍보기획전에 전시하고 있는 이 제품은 컵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물의 온도에 맞춰 예쁜 문구가 보이는 이색 아이디어 수공예품으로 개당 1만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주간 증시 포커스

국내외 변수속 상승 기대… 대형 우량주 관심

지난주 국내증시는 2005포인트에서 시작해 2006포인트로 마감하였다. 주간기준 등락폭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장중 최저치와 최고치가 1985~2033포인트로 비교적 큰 변동성을 보였다.

주초반 상승한던 증시는 지난 20일 공개된 10월 FOMC 회의록에서 참여의원 상당수가 고용지표가 기대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에는 연내에도 현행 3차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할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매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과 선물시장은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내리고 사면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세계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였다. 양적완화축소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머징국가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증시는 시진핑정부 출범이후 구조개혁에 따라 우리나라 제1무역국인 중국의 성장둔화우려와 엔화약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약화 우려가 커졌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초우량기업의 실적은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지만 그외 국내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것이 국내증시의 부진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와 함께 본격적인 지수상승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론 역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디커플링 현상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12월 18~19일 미국 FOMC회의를 앞두고 있고 FOMC회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지표 발표가 12월 6일에 예정되어 있어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연말효과와 함께 점진적인 지수 반등이 예상된다.

이번주에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코스닥시장에 대한 반등이 기대되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내년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인 만큼 경기 민감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